불교 찾은 MZ, 맞이할 준비돼 있는가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지난해 여름부터 현재까지 출판 트렌드는 '부처'와 '불교'로, 일반 출판사에서 불교 책들이 우후죽순 출간돼 대형서점에 판매되고 있다. 재작년 봄, 불교계 출판사가 아닌 A출판사로부터 〈법구경〉의 인문학 에세이를 저술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작년 봄에 출간했다. A출판사는 일반 철학 관련한 책을 주로 출판하는 곳으로 출판계에 입지가 굳은 회사이다. 이때 출간된 책 〈법구경 마음공부〉가 대형 서점에서 1년 넘게 평대에 자리 잡고 있고, 근자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A출판사로부터 재차 책 출판을 의뢰받았다. 이번은 'MZ세대가 볼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니, 불교 경전에서 쉬운 내용을 뽑아 달라'는 취지였다. 갑작스런 원고는 쉽지 않지만, 최근 MZ세대가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 힘들어도 문서 포교하는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책 하나가 출판되면, 부수적인 일들이 생긴다. 어느 유튜브 채널 제의로 이번 책과 관련한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영상 촬영 전, 그곳에서 보내온 질문이 '요즘 젊은 층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른 하나는 '요즘 명상이 널리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선(禪)과 명상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질문이 꽤 사려 깊다는 생각을 했다. 막상 촬영 날 작가를 만나보니, 그녀는 기독교인이고 몇 년에 한번씩 선교 활동을 하는 분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불교 명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출판 트렌드 '불교'
'힙불교', 단기 유행 안 되려면
시대 맞는 새로운 불교 창출을

근자 필자가 받는 질문이 'MZ세대'라는 단어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불교 관심에 필자는 크게 놀라지 않는다. 원래로 돌아간 느낌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원래 젊었고, 부처님 진리에 매료된 출가자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5비구 다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도 청년 야사였다. 우리나라도 나말여초·고려시대에는 젊은 출가자가 많았다. 특히 왕족 출가자들이 많았으며, 숭유억불 조선 시대에도 출가자는 이전보다 많았다.

이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최근 불교는 출가자가 급감하고, 출가자들 평균 연령이 높다. 게다가 불교신자도 줄고 고령화되고 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불교에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2000여 년간 동아시아 국가에 불교는 문화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불교를 대신할 다른 문화 코드가 없었다. 지난 10년 동안 불교 신자 감소는 문화적인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불교를 환호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옛날로 돌아간 셈이다. 그러면 지금 이 현실에서는 'MZ세대의 불교 관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들의 관심을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가'가 남는다.

첫째는 젊은 층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것은 불교로 개종한다는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불교의 평화 사상에 매료된 것이다. 제도권에 영입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오래도록 유지되기 위해서는 불교를 찾는 MZ세대들의 수요에 불교계가 따라줘야 한다. 현 시대 문화와 결합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불교가 창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유행하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둘째는 현재 불교계에서 하고 있는 포교 정책 사업이 꾸준히 계속 연계돼야 한다. 이에 따른 과감한 투자는 필수다.

모두를 위한 도량, 모두를 위한 불심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내년 시화집 발간을 계획하며, 최근 제주를 취재차 다녀왔다. 자연과 역사를 살펴보고 사찰을 둘러보며 '장애인에게 사찰은 어떤 공간인가'를 다시금 묻게 되었다. 불자로서, 그리고 장애불자 단체를 이끄는 입장에서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념이 아닌, 지금 이 삶에서 실현되어야 할 가르침이다. 오늘날 '배리어프리'는 그런 자비의 현대적 실천이기도 하다.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일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넘어, 불교 공동체 전체의 성숙과 직결된다.

다행히 최근 사찰에서는 '무장애' 공간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오르기 어려운 계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부족,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법문 부재 등 장애인에게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불자라면 누구나 기도하고 법문을 듣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찰은 때때로 장애인에게 높은 문턱이다. 외형적 장벽은 곧 마음의 장벽으로 이어진다. '특별한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장애인을 도움받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고정관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수행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과거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시각장애가 있던 아나율 존자, 지적장애를 가진 주리반특 존자가 있었다. 지금의 장애불자들 역시 부처님의 제자이며, 수행의 주체다.

'배리어프리' 사회 트렌드 확립
아직도 장애불자 홀대 사례 多
진정한 '無장애' 편견 극복부터

제주에서 겪은 일이다. 한 사찰에서 안내지를 요청하자, 담당자가 "글씨는 알아요? 들리고 보이긴 해요"라며 물었다. 말없이 안내서만 받아 나왔지만, 그 짧은 질문은 오래 가슴에 남았다. 서울로 돌아와, 한 회원은 모임 때문에 간 어느 불교회관 입구에서 "보호자는 없냐? 왜 왔냐"는 무시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중증장애인이지만 신행에 누구보다 성실한 불자다. 이런 말은 매번 깊은 상처를 남긴다.

사찰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신행의 공간이어야 한다. 휠체어에 앉아 굽은 손으로 합장하는 모습, 점자경전을 더듬는 손끝, 수어로 염불하는 손짓 또한 수행의 한 모습이다. 이들은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이웃이며, 부처님 제자들이다.

진정한 배리어프리는 건물이나 시설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인식의 전환, 차별 없는 마음, 동등한 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사홍서원의 첫걸음,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에 닿는 길이다.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오며, 많은 사찰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진정한 도량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 높은 계단보다 깊은 이해가 있고, 화려한 장엄보다 따뜻한 맞이가 있는 곳. 장애가 있어도, 언어가 달라도 누구나 기도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곳이 곧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야 할 불국토이며, 자비의 도량이다.

社 說

전통과 변화 함께하는 전법포교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000일을 맞아 6월 23일 1000일차 108배를 회향하며 선명상 보급과 재정기반 마련, AI콘텐츠 개발, 청년세대 소통 등 미래 시대 전법포교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그간 강조해 온 선명상 보급은 전국 사찰이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템플스테이와 연계함으로써 사찰이 국민적 수행처로 기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명상 대중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단 재정의 자립과 투명성 확보는 분담금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본말사가 재정적 자립을 이루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특히 종단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불교정신에 부합하는 윤리적 수익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시스템 구축을 구축하기로 해 주목된다.

AI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전법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책이다. 최근 불교를 친근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교를 전달하겠다는 구상은 미래 세대와의 소통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소통' 전략도 추진된다.

이 같은 비전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종책과 로드맵으로 가시화될 예정이다. 조계종의 전법포교 혁신 비전이 전통과 현대, 수행과 기술, 신앙과 대중 사이의 다리를 놓는 시도가 되길 기대한다.

태고종, 종단 외연 확장 기대된다

최근 가장 활발하게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불교 종단은 단연 '태고종'이다. 각종 사회 이슈를 선점해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 중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있다.

상진 스님은 취임 초부터 종단 구성원과의 소통과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종단 외연 확장을 위해 상진 스님은 총무원장 직속 대외협력자문위원회를 발족·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기에 이어 올해에도 2기 자문위원들이 위촉됐다.

새롭게 영입된 자문위원은 정치, 경제, 문화유산, 학술, 전법포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문화유산과 전법포교 분야가 강화된 점이 눈길을 끈다. 문화유산 활동가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지자체 공무원 학예연구사 단체인 엄원식 전국학예연구사회장 등과 전법포교 분야에 합류한 전 대불련 회장인 주현우 해탈컴퍼니 대표와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이 그 방증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종단 사업 참여로 종단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상진 스님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태고종은 그 부족함을 채워가며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했다. 자문위원들의 경책과 조언을 거름 삼아 태고종이 외연을 확대하고 종단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7월 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7월 2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7월 2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